

대외경쟁력 하락 비상 경고음

지난 5월 경유세 정부보조 등 적지않은 과실을 따먹은 화물연대는 또 다시 높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런 사이 중국으로 보따리를 싸는 기업들이 늘고 한국경제는 5년만에 최대의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개구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속에 집어던지면 놀래 뛰쳐나와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속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고 만다는 이야기다. 지금 한국인들은 마치 미지근한 물속에 잠긴 개구리처럼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게 아닌가. 아니 오히려 위기를 재촉하는 무모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최근 외국인론들은 한국의 위기에 대해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또 다른 위기(Korea's Other Crisis)'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북핵위기 외에 전투적 노조에 의해 야기되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랜 파업 끝에 물가상승률의 거의 3배인 8.6%의 임금인상을 관철시켰고, GM대우차 노조도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5월 경유세 정부보조 등 적지않은 과실을 따먹은 화물연대는 또 다시 높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런 사이 중국으로 보따리를 싸는 기업들이 늘고 한국경제는 5년만에 최대의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 사설도 한국내 대형노조의 파업사태를 지적하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도 노동계파업이 한국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의 활기찬 경기회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밖에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는데도 내부에서는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보수·혁신이니 좌·우 대립이니 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념논쟁까지 난무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구류 세력 싸움에 정신이 없다.

▶▶ 대외경쟁력 급속히 약화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쇼크가 가해졌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다. 고갈된 외화를 보충하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달갑진 않지만 구조조정에도 적극 응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 당시 국민들은 끓는 물속에 던져진 개구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외환위기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들 하고 노사분규, 각 집단간 대립·갈등 등으로 사회의 어수선�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다. 세태를 걱정하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며 자포자기에 빠져버린 것 같다. 이런 사이 위기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은 줄고 임금은 급등하고 있다. 올 1~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나 올랐다. 한국 주요 대기업 사원의 연봉은 우리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미 추월하고 있다.

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은 좋다고 하자. 그렇다면 노동생산성이라도 높아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이른바 단위노동비용은 한국이 지난해 5.9% 상승한 반면, 미국은 -1.3%, 일본 -4.5%, 대만 -8.8%의 감소율을

올 1~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나 올랐다. 한국 주요 대기업 사원의 연봉은 우리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미 추월하고 있다.



보였다.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임금은 많이 오르고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처럼 임금삭감없는 주5일근무제가 확산될 경우 우리의 대외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처럼 노동의 강도를 높이지 않는 한 생산비상승과 대외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중국의 3분의 1수준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은 바로 경쟁력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업의욕을 잃은 기업들은 현금은 갖고 있을 지언정 설비투자에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 않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감하고 대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급증해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공단은 자꾸만 황폐해지고 있다. 강성 노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다며 직장을 폐쇄하는 외국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 해운사들은 환적(換積)지로 이용해온 부산항을 속속 떠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감하고 대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급증해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모두가 떠오각성해야

외환위기후 우리는 그 이전과 비교해 원화가치가 급락했다. 그런데도 달러화로 환산한 한국의 임금이 선진국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니 그동안 원화로 따진 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금리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영업을 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만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율과 금리를 돌려 놓는다면 견딜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만큼 외환위기후 유리해진 지표를 향유한 나머지 한국기업의 체질이 약화됐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조, 정부, 정치인, 일반국민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긴장감을 갖고 서로 욕구를 자제하며 협조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래야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소득 2만달러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